

영풍지역어의 분화양상

신 승 원

I. 서 론

1.1 국어 방언구획의 연구사 검토 및 연구의 목적

방언은 '통일 속의 분화요, 분화 속의 통일'이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것처럼 (A.meillet 1967 : 70)¹⁾, 끊임없이 통일과 분화를 거듭한다. 방언(또는 지역어)의 분화는 지역간의 차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분화와 사회 계층간의 차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분화가 있다.

국어 방언연구사를 통해 볼 때, 지금까지 우리들의 대부분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지역적 분화이었다(이병근 : 1979). 이른 시기의 소창진평(1940, 1944), 하야옥량(1945)을 위시하여 이진모(1953), 김형규(1962), 김민수(1964), 강운호(1965), 최학근(1959, 1968), 이승녕(1967), 이기문(1972), 김공철(1982)이 있는데, 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방언구획²⁾을 시도하였다(김충희1983 : 1, 전광현1986).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방언구획을 시도한 것으로는 김영송(1963), 천시권(1965), 이기백(1969), 김영태(1975), 도수희(1977, 1981), 이돈주(1978), 이익섭(1981), 김충희(1983), 박지홍(1983), 이기갑(1986), 이승재(1

- 1) 방언과 지역어의 명칭은 서로 다른 개념을 지닌다. 전자는 동남방언, 서남방언, 중부방언 등 뚜렷한 대단위 방언권내의 언어를 총칭하며, 후자는 의성지역어, 영풍지역어, 상주지역어 등 방언구획과 상관없이 어느 한 행정단위 지역의 언어를 지칭한다.
- 2) 이외에도 광충구(1983)와 이승재(1983)을 더 들 수 있는데, 전자는 '왕거'에 의한 지리적 분포를 그리고 후자는 어중 'ㄱ ㅅ ㅌ'류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방언의 내적 재구형에 의한 지리적 분화를 각각 다루었다.

987), 소강춘(1989)이 있다.

군단위 이하 지역어의 분화에 대해서는 최갑순(1977), 신승원(1982), 최영희(1982), 김정현(1983), 정경남(1987), 김진식(1988) 등이 있다.

방언(또는 지역어)의 지역적 분화에 대한 현저한 연구성과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의 사회적 분화에 관심을 기울인 보고서로는 그리 많지 않다. 강신항(1976), 이익섭(1976), 최영옥(1980), 신승원(1982), 박경래(1984, 1985, 1986), 정영주(1985, 1987), 곽진섭(1987)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업적들을 검토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언구획에서는 방언권의 명칭, 방언권의 크기, 등어선속, 등어선의 등급화, 방언특징의 범주 등이 그것이다(전광현 1986: 49).

둘째, 방언구획은 어휘·음운·형태·어법구획으로 골고루 나누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음운구획이나 어휘구획 한 둘만을 다루었다. 특히 음운구획은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음운변동을 대상으로 하여 방언구획을 설정하지 못하고,³⁾ 형태소 내부에 화석화되어 있는 음운변화를 찾아내어 그것을 나누었다. 또한 어휘 위주의 방언구획은 방언측정법(dialectometry)⁴⁾에 의거해 볼 때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될 수 있겠다.

셋째, 방언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방언간의 비교연구와 언어지리학적 연구(언어지도 작성)임에 비추어 볼 때(이익섭 1978: 171), 사회적 분화를 대체로 등한시하고 지역적 분화에 치중해 왔으며 아울러 방언지도 작성에도 소홀한 감이 있었다.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다음을 거론할 수 있다.

3) 소강춘(1988)은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음운현상들의 분화상을 가지고 전북방언의 방언구획을 이루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방법에서 벗어난 매우 중요한 연구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4) 방언측정법의 등급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chambers and Trudgill(1980: 112~120), 이익섭(1981: 80~85, 1984: 140~145)을 참조.

전국적인 방언권의 설정을 위해서는 일차적인 소방언권의 확인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단위의 대방언권의 구획을 시도하는 상향적 방법을 취해야 하겠고, 어휘·음운·형태·어법 등 여러 방면에 걸친 방언구획화 작업과정을 좀더 과학화, 객관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전광현1986: 54). 동시에 방언간의 지역적 분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화도 함께 고려함과 아울러 방언지도 작성에도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영풍지역어(앞으로 '영풍어'라 부른다.)의 지역적 분화와 세대적분화 - 사회적 분화의 일종인 - 를 기술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어휘·음운·형태·어법 등 115항으로 구성된 조사질문지를 이용하여 영풍어의 ①어휘 및 형태에 의한 구획⁵⁾, ②음운에 의한 구획, ③어법에 의한 구획으로 나누어 각각 지역적 분화와 세대적 분화를 다룬다.

1.3 조사과정

자료조사는 2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본조사로서 1986년 1월 12일에서 1월 23일까지 12일간, 그리고 2차 조사는 확인·보충조사로서 1986년 2월 27일에서 3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각 실시되었다.

1차 조사의 결과 음운에 의한 구획, 어법에 의한 구획은 설명하게 드러나나, 어휘 및 형태에 의한 구획은 그렇지 못하여 2차 조사시 어휘목록 30여 개를 추가하였다.

영풍군은 행정구역상으로 1시 1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2.1 지도1 참조), 필자는 미리 마련된 조사질문지를 가지고 조감하는(이병근 1985: 217~220) 방식으로 영풍군을 일주하면서 조사하였다.

영풍군의 조사 가운데 특히 풍기읍과 평은면의 조사지점선정의 과정은 좀

-
- 5) 필자의 원래 의도는 어휘와 형태에 의한 구획을 각각 나누어서 기술하려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찰해 본 결과 그것들을 통합해서 기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3.2참조).

특이하다. 풍기읍은 정감록에 10대 보신지 가운데 제일 좋은 곳으로 기록되어 있어⁶⁾, 난세를 피하기 위해 외지(주로 이북)에서 이곳으로 많이 이주해왔기 때문에, 여러 대를 이곳에서 출근 거주한 이상적인 체보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풍기읍사무소에 들러 총무계장 강석당씨의 소개로 조사지점을 간신히 정할 수 있었다. 한편 평은면 평은리는 현지자료 조사에 앞서 이상규(1983 : 109)를 통하여, 영풍군내에서 방언의 섬지역에 해당되며 아울러 역촌지역이라는 사실을 예비지식으로 알았다. 이러한 예비지식과 함께 현지 주민들의 언어감각 내지 언어의식에 힘입어 평은면을 <영은지역>과 <금광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해야만 했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전자는 역촌(驛村)에 해당되는 지역이었고 후자는 비역촌 지역이었기 때문이다.⁷⁾

조사질문방법으로는 간접질문법을 택했는데, 특히 음운, 어휘 및 형태를 조사할 때는 명명식질문법(命名式質問法)을 이용했고, 어법을 조사할 때는 대치식질문법(代置式質問法)을 이용했다(이익섭 1979 : 97).

1.4 체보자 선정

체보자로써는 해당 지역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아온 본토박이 화자들로 노년층(老 : 50대 후반 이상)과 젊은층(少 : 30대 미만)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1개 지점에 노년층은 1내지 2명을 젊은층은 반드시 3명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에 임했다. 영풍군내의 조사지점은 2개 지점으로 나누어 조사될 필요가 있는 평은면을 포함하여 모두 12개 지점이며, 47명의 체보자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⁸⁾

6) 이병도의 역(1977) 정감록,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pp.285~286 참조.

7) 영풍군의 현지 주민들은 평은면 평은리를 <영은>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는 충주 석씨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동족부락이다. <금광> 역시 동족부락으로 인동장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8) 현지자료조사 질문지를 만들어 주신 서울대학교의 최명옥 교수님께, 그리고 오랜 조사기간 동안 자료 및 여러가지로 편의를 친절하게 제공해 주신 영풍군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Ⅱ. 본 론

2.1 영풍군의 연혁 및 지리적 위치

‘신증 동국여지승람(1530)’, ‘경북 지명유래 총람(1984)’, ‘영주시 통계연보(1984)’에 의하면 영풍군은, 삼국시대 초기엔 고구려의 내이군(奈已郡)에 속하였으나, 신라 파사왕(?~112) 때 신라에 병합되었으며, 경덕왕(742~765) 때 내령군(奈靈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성종(960~997) 때 강주(剛州)로 고치고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 그 후 고려 현종 9년(1018)에 길주(吉州: 현 안동)에 속하였다가, 인종 21년(1143)에 다시 순안(順安)으로 바뀌어져 현령을 두었으며, 고종 45년(1258)에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승격되었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 영천(榮川)이라 개칭되었으며, 1914년 영주군(榮州郡), 풍기군(豐基郡), 순흥부(順興府)가 폐합될 때 영주군의 영주면으로 되었다가, 1980년 영주읍의 시 승격에 따라 영풍군(榮豐郡)으로 바뀌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도1. 영풍군의 행정구역〉

(보기) · 필자의 현지 조사지점

영풍군은 경북의 최북단에 자리잡고 있어서 동으로 봉화군, 남으로 안동군, 남서로 예천군, 북으로 강원도 영월군, 북서로 충북 단양군과 각각 접하고 있다.

영풍군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2.2 영풍어의 언어지리학적 위치

영풍어의 언어지리학적 위치는 기존의 연구결과(천시권 : 1965, 이기백 : 1968)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 보고서는 경북의 방언구획을 음운면, 어휘면, 어법면에서 다룬 것이다.

음운면에서 천시권은 기저음운목록 중 ‘ㅅ’과 ‘ㅆ’이 별개의 음소적 대립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 경북의 방언구획을 다루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ㅅ’과 ‘ㅆ’이 구별되는 북부지역과 ‘ㅅ’만이 존재하는 남부지역으로 나누어진다.⁹⁾ 그러한 구획에 의하면 영풍군은 북부지역에 속한다. 이기백은 음운목록 ‘쇠(鐵)’나 ‘별(星)’ 등을 통하여 자음 뒤의 ‘외’와 ‘여’의 실현과, 음운목록 ‘흙(土)’, ‘닭(鷄)’ 등을 통하여 어말자음군 ‘ㄹ’의 실현 여부에 따라 그것을 다루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동남반부와 북서반부로 양분된다. 북서반부는 다시 북서접경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한 구획에 의하면 영풍군은 북서반부 내의 북서접경지역에 속한다.

어휘면에서 천시권은 ‘간장/지렁(醬)’ ‘때린다/썰린다(打)’, ‘달라/줄라(受)’의 실현분포를 통하여 경북을 북부지역, 동남부지역, 남서부지역으로 나누었다. 그러한 구획에 의하면 영풍군은 북부지역에 속한다. 이기백은 ‘두부, 변소, 구유, (馬槽), 삽’ 등의 방언적 분포를 통하여 그것을 동부해안지역, 북서접경지역, 중부내륙지역, 남부지역으로 나누었다. 그러한 구획에 의하면 영풍군은 북서접경지역에 속한다.

어법면에서 이기백은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하여 경북의 방언구획을 남반부지역, 중북부지역, 중서부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그러한 구획에 의하면 영풍군은 중북부지역에 속한다.¹⁰⁾

또 한편으로, 영풍어의 언어지리학적 위치를 어느 정도 알려주는 최학근

9) 최명옥(1986 : 112)은 ‘ㅅ’과 ‘ㅆ’이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지역을 크게 보아 낙동강 동쪽의 경남·북에 걸쳐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의성북부지역(신승원1982 : 10~11), 안동지역(이동화1983 : 8)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10) 이것은 이기백에 의한 구획인데 천시권도 이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다만 구역명칭을 ‘~능교 형 지역(대구·경주 중심)’, ‘~니껴 형 지역(안동·의성 중심)’, ‘~여 형 지역(상주·선산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다.

(1971, 1976)의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연구 보고서에서 최학근은 음운, 어휘, 어법, 성조를 이용하여 전국을 2대 방언군(북부방언군과 남부방언군)으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구획에 의하면 영풍어는 남부방언군의 접경지대에 속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부터 영풍어는 남부방언군의 접경지대에 속한다는 것 — 접촉방언이라는 것 — 과 경북방언권 내에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언어지리학적 위치를 개괄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영풍군 내의 하위지역어 구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3 문화적 배경에 의한 구획

군내의 하위지역어구획을 논의하기 전에 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구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획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시장권, 교통권, 교육권, 통혼권(결혼권)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들은 언어분화를 일으키는 언어 외적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이익섭 1970, 1984 : 161, 신승원 1982 : 9, 김충희 1983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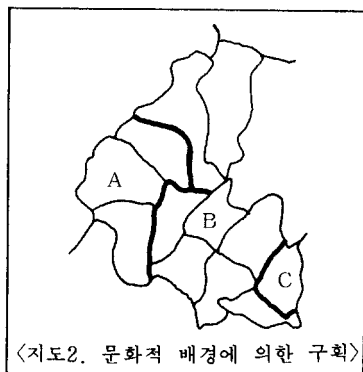
시장권은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보통 때는 그 지역에서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장을 본다(부석장(1일, 6일), 순흥장(2일, 7일), 풍기장(3일, 8일), 단산장(4일, 9일), 영주장(5일, 10일)이 정기적으로 개설되나, 그 외 지역은 시장이 개설되지 않음). 그러나 길·흉사를 맞으면 풍기 인접지역인 봉현, 순흥에서는 풍기장을 보고, 그 외 지역에서는 영주장을 본다.

교통권의 형성은 다음과 같다. 영풍군의 중심부인 영주시에는 우리 나라 5대 철도국의 하나인 영주 철도국이 소재하고 있으며, 중앙선과 경북선의 교차 지점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철로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육로 또한 발달되어 있는데, 영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남으로 안동, 남서로 예천, 북동으로 봉화, 북서로 풍기를 경유하여 단양으로 이어진다.

교육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보통 때는 각 지역에 있는 학교로 보낸다(부석(중, 고등), 순흥(중학), 풍기(중, 고등), 단산(중학), 영주(중·고등, 전문대)가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중등학교가 없음). 학생들을 다른 지역의 중등학교로 보낼 경우, 풍기 인접지역인 봉현과 순흥에서는 풍기로, 그 외 지역에서는 영주시로 보내며, 대학에 보낼 경우에는 1) 서울 2) 대구 3) 안동 순으로 많이 보낸다.

통혼권(결혼권)은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영풍군 내에서 평은면 평은리(영은)은 과거에 역촌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자기들과 동일한 신분 계층인 이웃 역촌인들과 통혼을 해야만 했다. 영은은 동족부락으로 충주 석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인접 지역인 안동군 북후면의 동족부락인 웅천동의 진주 강씨와 통혼을 주로 해 왔으며, 그 다음으로 봉화군 봉성면의 동족부락인 원둔리의 밀양 박씨와 그것을 많이 해 왔다.¹¹⁾

지금까지 논의해 온 시장권, 교통권, 교육권, 통혼권을 종합하면 <지도2>와 같은 구획이 나타난다.



2.4 영풍어의 선행연구 검토

영풍어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로는 오종갑(1982), 이옥화·이수주(1983), 최태영(1984), 정원순(1988)이 있다.

오종갑은 통시음운론적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16c 후반의 경상도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칠대만법(1569년, 풍기회방사에서 간행)」을 중심으로 이에 나타난 몇 가지 방언적 요소(어휘, 모음조화의 파괴 경향)를 살펴 보았고, 16c 후반의

자료를 통해서도 경상도 방언의 저해음계열에는 무성저해음/p, t, s, k/와 유성저해음/b, d, z, g/의 양계열이 기저음운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옥화·이수주는 통시·공시음운론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칠대만법」¹²⁾과 현대 풍기지역어에 나타난 유성저해음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들의 결론은, 16c 후반의 경상도 방언의 저해음계열을 오종갑(1982)과 같

11) 평은면의 어느 제보자에 의하면, 이곳 영은(평은리)에는 안동군 북후면 웅천동의 진주 강씨 집안 출신을 3명이나 며느리로 맞이한 집도 있으며 이러한 통혼은 불과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매우 흔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영풍군 평은면 영은지역어는 영풍군 내의 다른 하위지역어들과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3.1.2 참조)

12) 「칠대만법」과 관련된 연구논문으로는 오종갑(1982), 이옥화·이수주(1983)

이 설정했으며, 아울러 유성저해음 /b, d, z, g/의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와 현대 풍기지역어의 음운현상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최태영은 영풍군 순흥면 일대의 움라우트 현상을 조사하였다(최태영 1984: 36). 그는 통시·공시론적인 연구방법으로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움라우트 현상을 고찰하여,¹³⁾ 움라우트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조건 및 제약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하여 후일 여러 지역에서 조사된 움라우트 현상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움라우트의 파장을 추정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이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언구획을 긋는 데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풍기지역어는 움라우트에 있어서 서남방언과 중부방언의 중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았다(최태영 1984: 53).

정원순은 영주 북부 지역어의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음운현상을 통시·공시론적 입장에서 다루었는데, 조사대상지역은 영풍군 내의 풍기읍, 순흥면, 안정면에 국한하였다(정원순 1988: 2).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풍기지역에 한정되거나 지역을 조금 더 넓혀 풍기, 순흥, 안정 정도로 국한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다.¹⁴⁾

그러나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2.2 참조), 영풍어는 접촉방언¹⁵⁾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지역의 선정에 따라 연구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가 있다. 필자가 조사·연구한 바 있는 의성어(신승원 1982: 3~14)도 경북방언 내의 하위방언권들의 접촉결과로 생긴 접촉지역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접촉어의 성격을 띤 지역어 연구는, 먼저 사전에 연구대상지역 전체를 조감하는 조사를 통하여 지역어구획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연구목적에 따라

외에 김영신(1985)이 더 있다. 김영신은 1) 비정(批正), 2) 어휘, 3) 음운, 4) 굴곡, 통사, 5) 표기법의 향으로 나누어 그것을 연구했다.

13) 최명옥(1988: 79)에 의하면, 움라우트 현상은 형태소 내부의 것이나 형태소 경계의 것이나 간에 모두가 '통시적 현상'이다.

14) 이상규(1989)가 힘들여 조사한 경북방언자료 중 영풍어의 조사지점은 순흥면이었다(이상규 1983: 112).

15) 지금까지 이루어진 접촉방언에 대한 연구로는 이병근(1969), 이익섭(1970), 최학근(1971, 1976), 김영배(1976), 서주열(1980), 전광현(1983), 김재문(1984), 이상규(1984), 백두현(1985), 김덕호(1985) 등이 있다.

조사지점이 선정되어야만 온당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1 음운에 의한 구획

어느 정도로는 규칙적이면서도 극심한 방언차를 보여 주는 것이 음운에 의한 구획으로 흔히 언급되어 왔다. 그리하여 음운구획은 문법구획이나 어휘구획에 비하여 체계적인 그리고 정밀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이병근 1985 : 223).

3.1.1 음운체계

영풍어의 음운체계는 지역차나 세대차를 보이지 않는다. 순수모음 중에서 ‘에(e)’와 ‘애(ɛ)’가 중화되어 ‘E’로 실현되어 음소적 대립을 가지지 못한다. ‘때(群)’와 ‘때(時)’는 이곳에서 t'E로 실현된다. 또한 ‘으(ɨ)’와 ‘어(ə)’는 구별이 가능하여 ‘文’을 ‘글’이라 발음하고 ‘결(웃놀이)’을 ‘결’이라 발음한다. 그리하여 순수모음은 ‘이(i), E(에(e)/애(ɛ)), 으(ɨ), 어(ə), 아(a), 우(u), 오(o)’로 7모음 체계를 갖춘다(정원순 1988 : 7).

순수자음 중 치찰음(strident) ‘ㅆ’과 ‘ㅈ’이 서로 다른 음소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쌀(米) : 살(肉)), 순수자음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ㅂ(p), ㅃ(pʰ), ㅍ(pʰ), ㅁ(m), ㄷ(t), ㄷᄃ(tʰ), ㄸ(tʰ), ㄴ(n), ㄷᄂ(cʰ), ㅈ(c), ㅉ(cʰ), ㅅ(s), ㅆ(sʰ), ㄱ(kʰ), ㅋ(k), ㆁ(kʰ), ㅇ(ŋ).

유음으로는 ‘ㄹ(l)’을 지닌다.

활음에는 ‘w, j, ㅁ(?), ㅎ(h)’이 있다.

영풍어는 운소로서 성조(tone)와 음장(length)을 지니고 있다. 성조에는 고조(ˊ)와 저조가 있고 음장에는 장음(:)과 단음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 성조와 음장의 통합은 저조에서만 가능하므로, 영풍어가 지니는 성조와 음장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최명옥 1980a : 155~157).

고조 - 배(梨) + 가 → 배가, 말(馬) + 이 → 말이

저조 [저단조 - 배(腹, 船) + 가 → 배가, 말(斗, 草) + 이 → 말이
저장조 - 배(倍) + 가 → 배 : 가, 말(言) + 이 → 말 : 이

3.1.2 지역적 분화

1) 부사형어미 ‘아/어’의 교체

① 잡(捕) + 아/어도

A. [잡아도]부석, 단산, 순흥, 풍기, 봉현, 안정, 영주, 장수, 문수, 이산, 평은(금)

B. [잡어도]평은(영)

어간 ‘잡-’에 부사형어미 ‘아/어’가 결합될 때, A에서는 ‘잡아도’로 실현되어 어미 ‘아’가 결합되는데 비해 B에서는 ‘잡어도’로 나타나 어미 ‘어’가 연결된다. ①과 같은 음운현상을 보이는 목록으로는 ‘빨- (洗), 막- (防), 닫- (閉), 뺏: -奪’ 등이 있다.

② 어둡(暗) + 아/어도

A. [어두와도]부석, 단산, 순흥, 풍기, 봉현, 안정, 영주, 장수, 문수, 이산, 평은(금少)

B. [어두워도] 평은(영), 평은(금老)

어간말음이 비변칙으로 끝나는 어간에 부사형어미가 연결되면 지역적 분화를 보인다. 한편, 평은(금)에서는 세대적 분화를 보인다. ②와 같은 음운현상을 보이는 목록으로는 ‘춥- (寒), 더: 림- (汚), 쉽: - (易)’¹⁶⁾ 등이 있다.

①과 ②의 방언형을 언어지리학적으로 나타내면 <지도3·4>와 같다.

③ 때리(打) + 아/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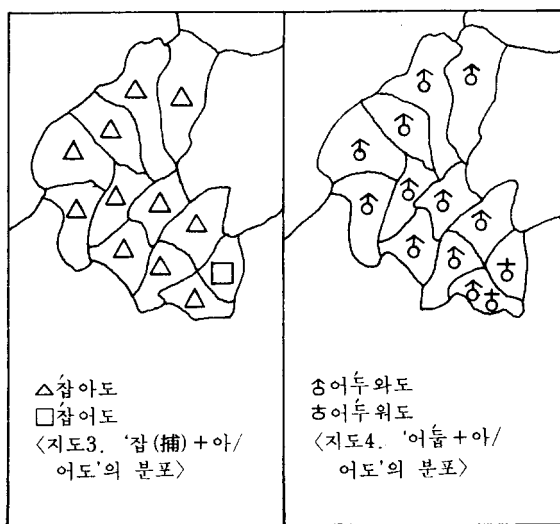
A. [때려도] 부석, 단산, 순흥, 영주, 장수, 문수, 이산, 평은(금)

B. [때리도] 풍기, 봉현,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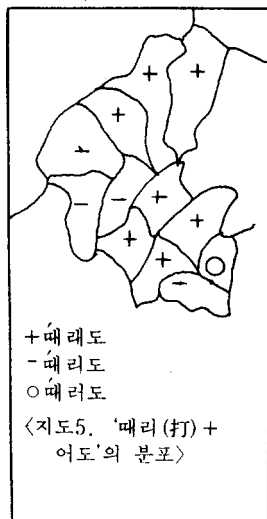
C. [때려도] 평은(영)

어간 ‘때리-’에 어미 ‘어’가 결합될 때 A에서는 때리+어도 → 때려도

16) 중앙어 ‘더럽- (汚), 무겁- (重) 쉽: - (易)’ 등은 영풍어에서 어간이 재구조화되어 ‘더: 림-, 무: 림-, 쉽: - (少)/쉽: - (老)’으로 나타나며, 어미 ‘아’가 결합되면 ‘더: 루와/워도, 무: 루와/워도, 시: 와/워도, 수: 와/워도’로 실현된다. 이러한 어간재구조화를 겪는 비변칙 용언들의 어사의 예를 김충희(1980: 105)와 정원순(1988: 15)에서도 각각 들고 있다.



(활음형성) → 때래도(모음축약)의 과정을 B에서는 때리+어도→때리이도(완전순행동화)→때리도(표면음성제약)의 과정을, 그리고 C에서는 때리+어도→때리도(어간말모음 'ㅣ'탈락)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것이다(최명옥1980a, 1982, 신승원1982). ③과 같은 음운현상을 보이는 목록으로는 '이기 - (勝), 비비 - (混), 붙이 - (附), 고치 - (修)' 등이 있다.



③의 방언형을 언어지리학적으로 나타내면 <지도5>와 같다.

2) 보상적 장모음의 유지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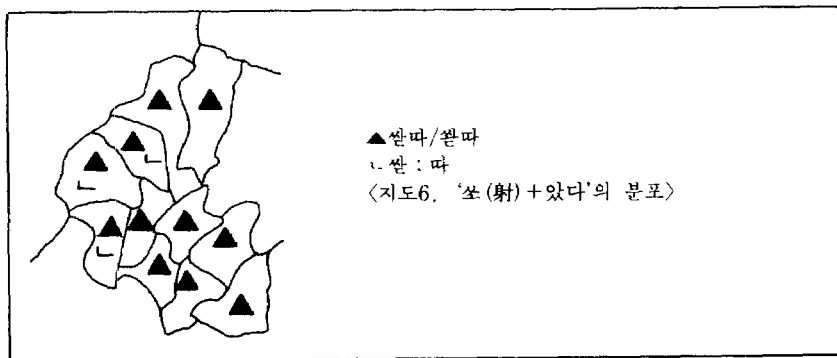
쏘(射)+았/었다

A. [쌔파/췌파] 부석, 단산, 순흥(老), 풍기(老), 봉현(老), 안정, 영주, 장수, 문수, 이산, 평은

B. [쌔:파] 순흥(少), 풍기(少), 봉현(少)

일음절 어간 ‘쏘-’에 선어말어미 ‘았’이 결합되면 B에서는 음절축약에 따른 보상적 장음이 실현되나 A에서는 보상적 장음이 탈락된다. 의성어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데 다인(老)와 비안(老)에서는 보상적 장음을 유지시키나 옥산어에서는 그것을 탈락시킨다(신승원1982: 42~46).

‘쏘+았다’의 방언형은 <지도 6>과 같이 실현된다.¹⁷⁾



3) 성조

가방

A. [가방] 부석, 단산, 순흥, 풍기, 봉현, 안정, 장수, 영주(少), 문수(少), 이산(少), 평은(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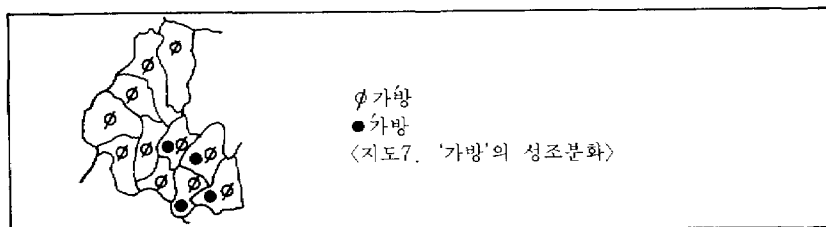
B. [가방] 영주(老), 문수(老), 이산(老), 평은(老)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A·B지역은 서로 상반되는 성조를 보인다. 이러한 성조의 분화는 영해어의 ‘아재(叔)’에서도 보이는데, 그것이 대진어에서는 ‘아재’로, 괴시어에서는 ‘아췌’로 각각 실현된다(최명옥1980a: 147). 성조

17) <지도 6>을 통하여, 우리는 순흥, 풍기, 봉현지역에서만 세대차가 일어난다고 인식하여 이 지역의 언어현상을 세대차로 논의하는 항에서 다를 수도 있으나, 뒤에 다룰 세대적 분화의 항(3.1.3 참조)에서는 영풍군 전역에서 젊은층(少)과 노년층(老)의 세대차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다루기로 한다. 이런 이유에서 다음의 <지도 7>도 마찬가지로 지역차에서 취급한다.

의 분화를 논의하는데 다루어질 목록은 '가방, 야재' 외에도 '이발, 달리기, 사다리, 양간다, 비빔다, 해바라기, 잡히었다' 등을 더 들 수 있다.¹⁸⁾

'가방'의 성조분화는 <지도 7>과 같이 나타난다.



4) 기저형

부엌(廚) + 에

A. [버어케] 부석, 단산, 순흥, 풍기, 봉현, 안정, 영주, 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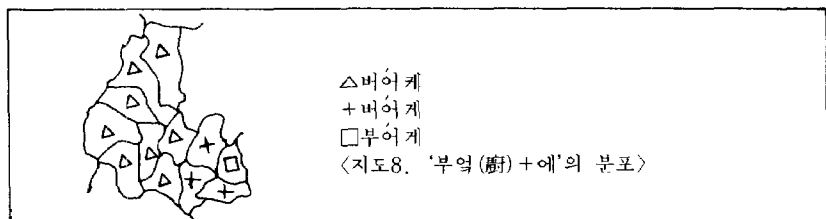
B. [버어게] 문수, 이산, 평은(금)

C. [부어게] 평은(영)

어사 '부엌'은 기저형을 달리하여 A에서는 버엌으로, B에서는 버억으로,

- 18) 성조의 분화를 보이는 '이발과 이발, 달리기와 달리기, 사다리와 사다리, 양간다와 양간다, 해바라기와 해바라기' 등과 같은 어사에 있어서 전자인 HL, HLL, HHL, HHLL은 고형에 속하고 후자인 LH, LHL, LLH, LLHL은 신행에 속한다(김영만 1986 : 38~43). 방언구획을 나누는 데 있어 운소(성조와 억양)를 사용한 연구는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끈다. 전자의 예로는 김영태(1975 : 22), 최학근(1971 : 782~784)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김충희(1983 : 5)를 들 수 있다. 국어를 운소에 의한 방언구획으로 나누어 볼 때, 국어는 동서로 길게 양분되어 동부는 성조언어(동남방언, 동북방언)에 해당되고 서부는 음장언어(서북방언, 중부방언, 서남방언, 제주도방언)에 해당된다. 같은 동남방언이라 하더라도 경북과 경남의 성조체계는 서로 다르다.(최명옥 1979 : 66, 이동화 1986 : 454~455). 그렇기 때문에 동남방언권의 하위구획을 다루는 데 있어 성조는 매우 중요한 방언구획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등급이 매겨져야 할 것이다(김완진 1967 : 156, 이익섭 1981 : 124 주 25), 1984 : 145).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운소를 사용하여 나는 방언구획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C에서는 부혁으로 각각 실현된다. '부엌+에'의 방언형은 <지도 8>과 같이 나타난다.



5) 음운의 유지탈락

① 흘애비 (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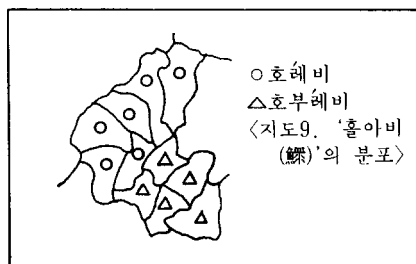
A. [호래비] 부석, 단산, 순흥, 풍기, 봉현, 안성

B. [호부래비] 영주, 장수, 문수, 이산, 평은

어사 '흘애비'는 '*~~ㅎ~~불애비'로부터 기원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승녕 1967: 381), A에서는 ~~ㅂ~~음이 탈락되었으나 B에서는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 ①과 같은 현상을 조사하는데 사용된 목적으로는 '가오리 (鰻魚), 이웃 (隣)+이' 등이 있다. 이들 어사는 영풍군 전역에서 ~~ㅂ~~음이 탈락되어 '가오/우리, 이우지>이우시 (>표시는 우세하다는 표시인데 이하도 같음)'로 실현되는데 비해 의성군 지역에서는 ~~ㅂ~~음이 유지되는 지역과 그것이 탈락되는 지역이 있어 각각 '가오/우리>가부리, 이우지/시>이부지/시'로 실현된다. 이들 어사는 *가~~ㅂ~~리, *이~~ㅂ~~에서 기원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후자는 16c의 이곳 자료인 「철대만법」(21)에 '이~~ㅂ~~'으로 기록되어 있어 통시적인 변화과정을 우리에게 잘 알려 준다.

위의 예들은 형태소 내부의 ~~ㅂ~~음이 약화·탈락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형태소 경계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 있다. 주 16)에서 예를 든 '더 : 룽 - (汚), 무~~ㅂ~~ - (重)' 등의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면 영풍군 전역에서 '더 : 루와/위도, 무~~ㅂ~~와/위도'로 실현된다. 「철대만법」에도 활용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더러운 (1), 더운 (1), 고오니 (2), 사오나온 (3), 두러운 (11), 앓가온 (14), 어즈러운 (19)' 등을 들 수 있다 (오종갑 1982: 519). 이들 어사는 b>β>W의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어사 '수고~~ㅂ~~ (16)'만이 약화된 ~~ㅂ~~음 (b>β)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신 1985: 98).

‘홀애비’의 방언형은 <지도 9>와 같이 같이 나타난다.



② 그으름 (煙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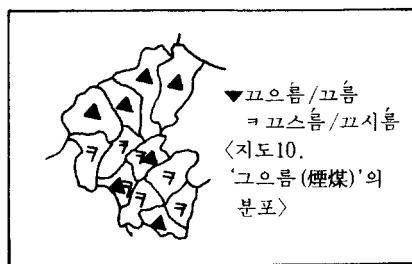
A. [끄(으)름] 부석, 단산, 순흥, 풍기, 영주, 장수, 평은(금)

B. [끄스름/끄시름] 봉현, 안정, 영주, 장수, 문수, 이산, 평은(영)

어사 ‘그으름’은 ‘*그스름’으로부터 기원되었는데, A에서는 스음이 삭제되었으나, B에서는 △>ㅅ에로의 무성음화를 보여주고 있다(오종갑 1989: 135~144). ②와 같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록으로는 ‘부엌(廚), 젓어라(漕), 부스러기(小片), 그을리(使煙)+은’ 등을 더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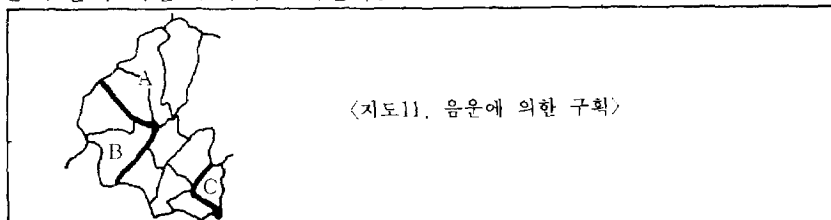
한편, 「칠대만법」에 나타난 ‘△’계 어사는 경상도 방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오종갑 1982: 523), 예를 들면 ‘스시에(間, 5), 7 숲(秋, 7, 10), 어버시(父母, 21)’ 등은 ‘△’을 유지하는 것으로 16c 후반 중앙어에 침투한 약화규칙이 경상도 방언에 침투되지 않은 결과이다. 그리고 ‘스시에(4, 6, 7, 12, 13, 22), 7 술히(17), 어버시(21)’ 등은 ‘△>ㅅ’으로 변화된 무성음화 규칙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어사이다(오종갑 1989: 168~173).

②의 방언형은 <지도 10>과 같이 실현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도 3>에서 <지도 10>까지를 종합하면 <지도 11>과 같

은 음운에 의한 구획이 드러난다.



〈지도1〉. 음운에 의한 구획

3.1.3 세대적 분화

1) 음운의 유지 탈락

① 일#요일

이료일/이로일(少), 이로일(老)

복합어 형성시 젊은층에서는 활음 j의 삭제가 임의적이나 노년층에서는 그것이 의무적이다.

② 꾸(夢)+있다

겉따(少), 필따/겉따(老)

어간 '꾸-'가 과거시제표시의 선어말어미 '았'과 결합하면 젊은층에서는 활음형성(뿌: 따) → 활음삭제(겉: 따) → 장음삭제(겉따)의 과정을 겪었으나, 노년층에서는 활음(w)의 삭제과정이 임의적이어서 젊은층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 보고서(최명옥1980: 179, 신승원1982: 44~46)에 의해 볼 때, 노년층에서는 대체로 활음삭제 과정을 임의적으로 겪으나 젊은층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의무적으로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먹(食)+어라

머어라(少), 머거라(老)

젊은층에서는 ㄱ음 탈락이 의무적이거나, 노년층에서는 그것을 유지한다.

①, ②, ③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젊은층이 노년층보다 발음경제원칙에 입각한 조음활동을 수행하여 음운삭제(탈락)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19)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잠정적인 결론에 불과한 것이다. 아직까지 세대차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음운·형태·통사·의미론적 연구)는 요원한 상태이나 음운론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한다면, 대체로 음운체계(자음체계, 모음체계, 운소

2) 어간의 재구조화

① 쉽 : (易) + 아/어도

시 : 화도/워도(少), 수 : 화도/워도(老)

어간 ‘쉽 : -’이 젊은층에서는 ‘쉽 : -’으로 노년층에서는 ‘쉽 : -’으로 각각 재구조화 되었다.

② 듣(聽) + 는다, 듣 + 고,

어간 ‘듣 -’이 젊은층에서는 그래도 ‘듣 -’으로 존재한다. 활용하여 보면 ‘듣 + 는다 → 듣는다, 듣 + 고 → 듣꼬’로 실현된다. 그러나 노년층에서는 ‘듣 -’으로 어간이 재구조화되어 활용시에는 ‘듣 + 는다 → 들른다, ‘듣 + 고 → 들꼬’로 실현된다. 이와 같은 ㄷ변칙용언의 어간재구조화는 경북의 동북부 지역(영해, 안동, 봉화, 청송, 영양, 울진)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한 목록으로는 ‘묻 : >뭍 : (問) -, 논 : >늬 : (焦) -, 걷 : >겹 : (步) -, 싣 : >싹 : (載) -’ 등을 더 들 수 있다(최명옥 1978 : 77, 1985 : 172~173).

③ 높다(高)

늠따(少), 노푸다(老)

어간 ‘높다’가 재구조화를 보여 세대차가 일어난다. 젊은층에서는 ‘늠꼬, 늠찌, 노파도’ 등으로 활용하므로 ‘높 -’이 어간인데 비하여, 노년층에서는 노푸고, 노푸지, 노파도 등으로 활용되므로 ‘노푸 -’가 어간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성어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체계)와 음운현상 중 i모음역행동화, 자음군 단순화 등을 다루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박경래 1984, 1985, 1986, 꼭진섭 1988 등). 비록 음운현상이라 하더라도 세대차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활용삭제현상, 전설고모음화현상, e:i 현상, 첨가와 탈락현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의성어에서 활용삭제현상(신승원 1982 : 41~42)은 영풍어와 마찬가지로 젊은층이 노년층보다 활발하게 일으키나, 유음탈락현상(신승원 1982 : 49)과 전설고모음화현상(신승원 1982 : 35)은 노년층이 젊은층보다 더 활발하게 일으킨다. 그러므로 영풍어에 대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한 뒤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①, ②, ③을 통해 볼 때 어간의 재구조화는 젊은층보다는 노년층이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3.2 어휘 및 형태에 의한 구획

어휘에 의한 방언구획은 방언측정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등급이 가장 낮은 것인데, 그러한 이유는 어휘가 화자에 의해 의식적으로 조절되거나 변화되기가 다른 것들(형태·통사·의미 등)에 비해 훨씬 쉽기 때문일 것이다(Chambers and Trudgill 1980 : 112~116).

영풍어는 접촉방언(2.2 참조)에 속할 뿐 아니라 교통이 매우 발달(2.3 참조)한 때문에서인지는 몰라도, 필자의 영풍어에 대한 어휘조사 결과는 이익섭(1984 : 141~142)에서 말하는 ‘참꽃:진달래, 강냉이:옥수수’처럼 어원을 달리하는 분명한 어휘구획이 드러나질 못하였다. 물론 어휘조사 목록을 보다 세분화하고 연구방법을 달리하면 더욱 선명한 구획이 나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필자는 영풍어에서 어휘에 의한 구획 및 형태에 의한 구획을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이 방법을 취한다.

3.2.1 지역적 분화

① 여우(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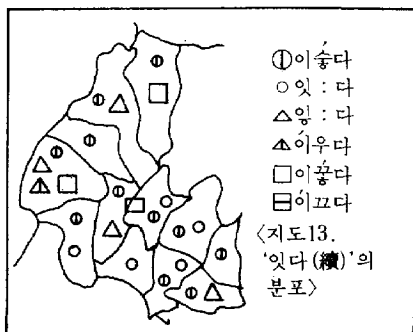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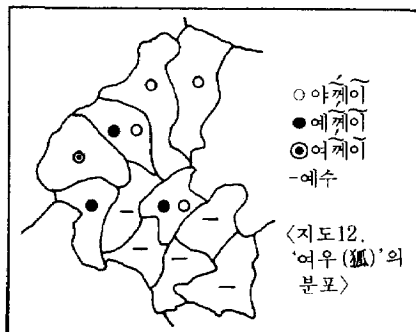
- A. [야^ㄹ쨌^ㄹ] 부석, 단산, 순흥, 영주
- B. [예^ㄹ쨌^ㄹ] 순흥, 봉현, 영주
- C. [여^ㄹ쨌^ㄹ] 풍기
- D. [예수] 안정, 장수, 이산, 문수, 평은

‘여우’의 방언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승녕(1967 : 388)과 이승재(1983 : 225, 228)에서 이 목록에 대한 전국적인 분화상을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이들의 연구를 참고해 볼 때 영풍어는 여러 어형이 혼재하는 극심한 등어지대에 속한다.

② 잇:(續)+다, 잇:+고, 잇:+어라

- A. [이^ㅅ술다, 이^ㅅ술코, 이^ㅅ와(老)/사(少)아라]부석, 단산, 순흥, 풍기, 봉현, 안정(少), 영주, 장수, 문수, 이산(少), 평은(금少), 평은(영)
- B. [잇:다, 익:꼬, 이서라] 봉현(老), 영주(老), 문수(老), 이산(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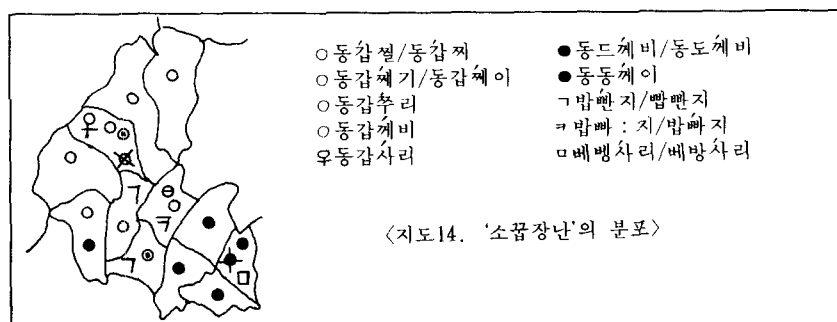
- C. [임 : 다, 익 : 꼬, 이어라] 단산(老), 풍기(老), 안정(老)
 D. [이꿔다, 이꼭코, 이까아라] 부석(少), 영주(少)
 E. [이끄다, 이끄고, 이꺼라] 풍기(少)
 F. [이우다, 이우고, 이어라] 풍기(老), 평은(금老)
 ①, ②의 방언형은 <지도 12·13>으로 표시한다.



③ 소꿉장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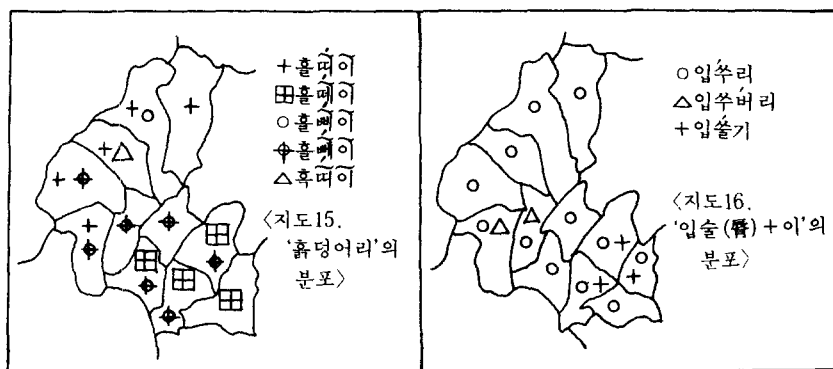
- A. [동갑질/동갑찌] 부석, 단산, 순흥, 풍기, 봉현, 안정(老), 영주(老)
 B. [동갑찌기/동갑찌이] 순흥(老), 장수
 C. [동갑쭈리] 영주(老)
 D. [동갑찌비] 순흥(老)
 E. [동갑사리] 순흥(少)
 F. [동드찌비 동도찌비] 봉현(老), 문수, 이산, 평은(老)
 G. [동동찌미] 평은(영老)
 H. [빔빔지/빔빔지] 안정, 장수(少)
 I. [빔빔 : 지/빔빔지] 영주(老)
 J. [베방사리/베벳사리] 평은(영老)²⁰⁾

③의 방언형은 ①, ②보다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지도14>와 같다.



④ 흙덩어리

- A. [흙뽀이] 부석, 단산, 순흥(老), 풍기(少), 봉현(老)
 B. [흙뽀이] 장수(老), 문수(老), 이산, 평은
 C. [흙뽀이] 단산
 D. [흙뽀이] 풍기, 봉현, 안정, 영주, 장수(少), 문수, 이산
 E. [흙뽀이] 순흥(少)



- 20) 영풍군의 젊은층에서는 이것 외에도 보편적으로 [살림사리, 살금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젊은층의 제보자들이 요즘에는 옛날처럼 소꿉장난을 많이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에 열거한 많은 방언형들을 곧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⑤ 입술(脣) +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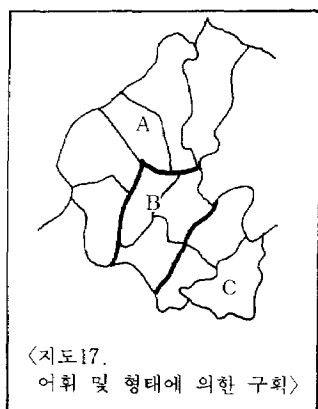
A. [입쑤리] 부석, 단산, 순흥, 풍기, 봉현, 안정, 영주, 장수, 문수, 이산, 평은

B. [입쑤러리] 봉현, 안정(少)

C. [입쑤기] 문수(少), 이산(少), 평은(영老)

<지도 15, 16>은 ④와 ⑤의 방언형을 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지도 12>에서 <지도 16>을 종합하면 <지도 17>과 같은 어휘 및 형태에 의한 구획이 나타난다.



3.2.2 세대적 분화

① 놀 : (霞)

놀 : (少), 나우리/나구리²¹⁾ (老)

젊은층과는 달리 노년층에서는 고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우리/나구리'는 '*늑브리(이승녕1967 : 401~403)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늑브리 > 늑브리 > 늑보리 >

{나부리}
{나우리} > 나구리

그런데 '나구리'는 '나부리'와 관련

- 21) 평은면(영은)의 노년층에서는 다른 지역의 노년층과 구별되게 '나우리/나구리'라 하지 않고 '달배기'라 한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어사는 역촌어로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통용되는 것으로 월경(月經)을 뜻하는데 저녁놀의 색깔과 월경의 그것과 유사한데서 지어졌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는 발어사로 '알래'가 있다. 이 어사도 역시 자기들과 다른 신분의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발어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7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만 오래 전에 이런 어사를 사용했다고 인근 문수면의 어느 노인께서 알려 주었음). 예를 들면 친구끼리 시장에서 만나 반갑다고 인사할 때 "알래! 자네 자야 완능가?", "알래! 자네 어디 가능고?" 등이다.

지어 볼 때 ㄱ : ㅂ의 음운 대응관계를 이룬다.

② 회오리바람(旋風)

돌개바람 > 회오리바람(少), 돌개바람(老)

이 어사는 젊은층에서 노년층과 달리 두 어형을 보이나 ‘돌개바람’이 더 우세하다. ‘돌개바람’은 충청북도 중에서 단양에만 보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쓰는 어사가 충청북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 볼 수 있다(김충희 1982 : 10).

③ 멍(타박상을 입어 생긴 결과)

멍 > 멍다구, 멍당구(少), 멍당구 > 멍(老)

젊은층에서는 ‘멍’이 우세하나 노년층에서는 접사가 연결된 멍당구가 우세하다.

④ 곁(側) + 에

여뻬 > 처테(少), 처테(老)

젊은층에서는 ‘처테’ 보다는 ‘여뻬’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노년층에서는 구개음화된 ‘처테’를 사용하고 있다.

⑤ 달강달강(애기를 앞뒤로 흔들 때 부르는 소리)

실강실강(少), 시 : 상달강 > 실강달강(老)

노년층에서는 이 어사의 물음에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였으나, 젊은층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대답을 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다.

⑥ 부라 부라(애기를 좌우로 흔들 때 부르는 소리)

(사용하지 않음)(少), 풀미딱딱(老)

이 어사는 세대차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젊은층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간혹 대답을 할 경우 기억을 더듬어 노년층의 것을 빌려 말했다.

이익섭(1981 : 40, 228)에는 강원도에 분포된 ‘부라부라’의 방언형을 언어지리학적으로 나타내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부라부라, 풀풀, 풀미풀미, 풀매풀매’ 등이 나타난다. 이중 후삼자는 ‘풀-풀-’형이라는 점에서도 그러려니와 삼자간에 지리적 분포상의 구분이 보이지 않아 한 계열(‘풀미풀미’계)로 묶고 보면, ‘부라부라’는 영서형이며, ‘풀미풀미’는 영동형임이 드러난다. 이로 보아 영동어의 ‘풀미딱딱’은 강원도의 영동형과 유사하다.

①에서 ⑥까지 열거한 자료에 의하면, 젊은층은 가급적 현대어 및 표준어

를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나 노년층은 고어 및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다. 아울러 젊은 층에는 사어가 된 어사도 있다.

3.3 어법에 의한 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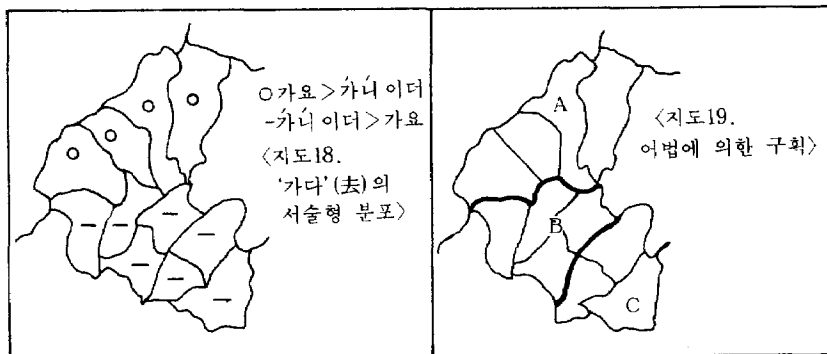
어법에 의한 구획은 등어선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방언측정법으로 볼 때 그 등급이 높게 매겨질 수 있다.

천시권(1965), 이기백(1967), 박지홍(1983)은 어법면에서 존대의 의문과 서술 종결어미를 기준으로 하여 경남북의 하위방언권으로 나누었는데, 천시권과 이기백은 경북을 3개의 하위방언권으로 나누었다(주 10) 참조). 그리고 박지홍은 경상도를 6개의 하위방언권으로 나누었다: <‘-니껴’지역(안동권)>, <‘-녕기요’지역(경주권)>, <‘-요/-여’지역(상주권)>, <‘-녕개/-녕교’지역(대구권)>, <‘-요/-구매’지역(진주권)>, <‘-요’지역(김해권)>

신승원(1982)은 의문법과 서술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의성어의 하위 구획을 셋으로 나눈 바 있다.

3.3.1 지역적 분화

‘가다(去)’의 서술형



A. [가요>가니 이더] 부석, 단산, 순흥, 풍기

B. [가니 이더>가요] 봉현, 안정, 영주, 장수, 문수, 이산, 평은
위의 예는 손위 사람이 손아래 사람에게 “아무개야, 어디 가노?”라고 물

있을 때 손아래 사람이 대답하는 서술형이다. 그런데 A에서는 ‘가요’가 ‘가니이다’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어 B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A는 충북 단양방언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²²⁾ (김충희 1983: 6).

①의 방언형은 <지도18>에 의해 표현되며, 그 결과로 인하여 <지도19>와 같은 어법에 의한 구획이 나타난다.²³⁾

3.3.2 세대적 분화

‘가다(去)’의 명령형

(少). 가아 라, 가계, 가이소/가소

(者). 가저 라/가그 라, 가계, 가시이소/가이소

경북 방언의 상대경어법 전반(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감탄법, 청유법(공동법), 약속법(허여법))에 대한 체계를 논의한 연구로는 강신항(1978, 1979, 1980), 배대은(1979), 최명옥(1980) 등이 있다. 강신항은 안동, 봉화, 영덕, 울진 일대를 포함하는 안동방언권의 그것을 다루어 ‘해라체(하칭), 하계체(등칭), 하오체(중칭), 합쇼체(상칭)’의 4단 체제로 나누었다. 배대은은 안동지역어를 최명옥은 영해지역어의 그것을, 각각 4단 체제(하대, 평대, 존대, 극존대)와 3단 체제(해:라체, 하계체, 하소체)로 설정한 바 있다.

영풍어의 명령형에 나타난 상대경어법 체계는 ‘해:라체, 하계체, 하이소체’로 나누어져 3단 체제를 이룬다. ‘가다’의 명령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젊은층과 노년층의 두드러진 차이는 존대소 사용빈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젊은층에서는 존대소 ‘—(으)이’의 사용이 임의적이거나 노년층에서는 그것의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방언자료집으로는 현재 충청북도편, 전라북도편, 경상북도편만이 나와 있다. 강원도편도 발행되었더라면 어법면에서 경북 영풍어와 강원도 영월어와의 영향관계를 잘 살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여 못내 아쉽다.

23) 필자가 영풍군의 현지 자료 조사 기간중 부석, 단산, 순흥, 풍기 지역 화자들의 언어(방언) 의식을 파악해 보니, 이들 지역어(A구획)와 그 외의 지역어(B구획)는 매우 많은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언(또는 지역어)의 구획에 있어 현지 조사지역 채보자들의 방언(지역어)의식은 매우 중요한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이익섭 1981: 86~87, 1984: 148).

사용이 의무적이다. 노년층은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한층 더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는 존대소 ‘-시-’, ‘-이-’를 함께 사용하는 수도 있으나, ‘가시이소’와 ‘가이소’가 체계상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변별되는 것은 아니다.

Ⅲ. 결 론

방언(또는 지역어)의 분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적 분화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것에 대한 연구라면 지역적 분화와 사회적 분화를 함께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경북방언의 한 하위어인 영풍어에 대한 지역적 분화와 세대적 분화 — 사회적 분화의 일종인 —를 함께 논의하였다. 전자를 통하여 영풍어의 하위지역어 구획을 음운에 의한 구획<지도11>, 어휘 및 형태에 의한 구획<지도17>, 어법에 대한 구획<지도19>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각각의 구획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음운에 의한 구획이 문화적 배경에 의한 구획<지도2>과 매우 유사하게 드러났으며, 역촌어인 평은면 영은지역어가 독립된 구획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후자를 통하여 영풍어가 세대차에 의해서도 음운, 어휘 및 형태, 어법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드러냈다.

영풍어는 경북방언권 내의 최북단에 속한 하나의 접경 지역어에 불과한데, 공식적인 입장에서 방언(또는 지역어)의 연구는 항상 인정하고 있는 방언(또는 지역어)와 상호 비교하는 태도에서 기술되어 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영풍어를 경북방언 내의 몇몇 지역어와 더 나아가 충북방언과 강원도방언과 상호 비교해 가면서 기술하였다. 또한 영풍어의 16c 모습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칠대만법」이 있어 비록 단편적이거나 통시적으로 상호 비교하면서 기술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²⁴⁾

24) 영풍어의 16c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는 이 외에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1592년 풍기 회방사에서 간행한 것도 있음)」가 있으나, 이본이 많아 자료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하므로 본고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태학사 영인(1986) 참조).

본 연구에는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다. 이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역촌어(평은(영))와 비역촌어를 좀 더 깊이있게 사회언어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비교연구와 영풍어의 하위지역어간에 음운·어휘·형태·통사론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그것이다. 아울러 지역적 분화와 세대적 분화를 야기시키는 언어 내적, 외적인 요인을 좀 더 심도있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 (1976) 경북 안동, 봉화, 영해지역의 이중언어생활 「논문집」(성균관대) 22.
- 강신항 (1978) 안동방언의 서술법과 의문법 「언어학」(한국언어학회)3.
- 강신항 (1979) 안동방언의 명령법·약속법 「논문집」(성균관대)26.
- 강신항 (1980) 안동방언의 경어법 「난정남광우박사 회갑기념논문집」(일조각).
- 곽진섭 (1988) 「청주지역의 음운변화에 대한 연구」(충북대학원) 석사 논문.
- 곽충구 (1983) '왕겨'의 방언형들의 지리적 분포와 그 비교연구 「개신어문연구」(충북대)2.
- 경북도교육위원회 (1984) 「경북지명유래총람」
- 김덕호 (1985) 「경북·충북 접경지역어의 음운 연구」(경북대학원) 석사 논문.
- 김방한 (1968) 구조 방언학 「어학연구」(서울대)4-1.
- 김영만 (1986)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연구」(고려대학원) 박사 논문.
- 김영배 (1976) 방언 접촉의 한 고찰 「국어학」(국어학회)4.
- 김영송 (1963) 경남방언 「경남도지」(중).
- 김영신 (1985) 칠대만법(七大萬法) 연구 「수련어문논집」(부산여대)12.
- 김영태 (1975) 경상남도의 방언구획 「논문집」(경남대)2.
- 김원진 (1967) 한국어발달사 상 「한국문화사대계 V (언어문학사)」(고려대)
- 김재문 (1984) 경남방언과 전남방언과의 방언경제선상의 음운고찰 「진주문화」(진주교대)5.
- 김정현 (1983) 「충남 홍성지역의 언어분화에 대한 연구」(단국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진식 (1988) 제원지역의 언어지도와 방언구획 「청사어문」(서원대) 6.
- 김충희 (1980) 충북 단양 남부방언 연구서설 「논문집」 19(충북대).
- 김충희 (1983) 충청북도의 방언구획 시론 「방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7.
- 노사신 (1530) 「신증동국여지승람」
- 도수희 (1977) 충남방언의 모음변화에 대하여 「이승녕선생 고회기념논총」
- 도수희 (1981) 충남방언의 움라우트현상 「방언」 5.
- 박경래 (1984) 「괴산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연구」(서울대학원) 석사 논문.
- 박경래 (1985) 괴산방언과 문경방언의 음운체계에 대한 세대별 비교고찰 「동천조건상선생 고회기념논총」
- 박경래 (1986) 괴산방언과 문경방언의 음운체계에 대한 세대별 비교고찰 「방언」 8.
- 박지홍 (1983) 경상도 방언의 하위방언권 설정 「인문논총」(부산대) 24.
- 배대은 (1979) 경북 안동지역어의 경어법 연구 「영남어문학」(영남대) 6.
- 백두현 (1985) 상주 화북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 「소당천시권박사 회갑기념 국어학논총」
- 소강춘 (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 신승원 (1982)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영남대학원) 석사논문.
- 영주시 (1984) 「제5회 영주시 통계연보」
- 오종갑 (1981) 「국어 유성저해음의 변천에 관한 연구」(영남대학원) 박사논문.
- 오종갑 (1982) 「철대만법」에 나타난 경상도 방언적 고찰 「공포 조규설교수 화갑기념 국어학논총」
- 오종갑 (1983) ㅈ, ㅊ, ㅌ, ㅍ의 변천, 「한국학논집」(계명대) 11.
- 오종갑 (1988) 「국어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출판부.
- 이기갑 (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탐출판사.
- 이기문 (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기백 (1969) 경상북도의 방언구획 「동서문화」(계명대) 3.
- 이돈주 (1978) 「전남방언」(어문학총서 206), 형설출판사.
- 이동화 (1983) 「안동지역의 음운동화와 삭제」(영남대학원) 석사논문.
- 이동화 (1986) 동남방언 성조의 연구와 검토 「영남어문학」(영남대) 13.

- 이병근(1969) 황간지역어의 음운「교양과정부논문집」(서울대) 1.
- 이병근(1979) 국어 방언연구의 흐름과 반성「방언」1.
- 이병근(1985) 방언「국어국문학 연구사」, 우석출판사.
- 이병도와 역(1977) 정감록「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 이상규(1983) 경북방언의 현지조사 과정과 방법「방언」7.
- 이상규(1984) 울주지역어의 음운「어문논총」(경북대) 18.
- 이상규(1989) 「한국방언자료집Ⅶ(경상북도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승녕(1967) 한국방언사「한국문화사대계Ⅴ(언어문학사)」(고려대)
- 이승재(1983) 재구와 방언분화「국어학」(국어학회) 12.
- 이승재(1987) 전북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국어생활」(국어연구소) 5.
- 이옥화·이수주(1983) 풍기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비사논집」(계명대) 6.
- 이익섭(1970) 전라북도 동북부지역의 언어분화「어학연구」(서울대) 6-1.
- 이익섭(1976) 한국 어촌방언의 사회언어학적 고찰「진단학보」42.
- 이익섭(1978) 한국 방언연구의 한 방향「어학연구」(서울대) 14-1.
- 이익섭(1981) 「영동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출판부.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전광현(1983) 영동·무주 접촉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동양학」(단국대) 13.
- 전광현(1986) 현대 국어의 방언권「국어생활」(국어연구소) 5.
- 정경남(1987) 「설천지역의 분화상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원) 석사논문.
- 정원순(1988) 「영주 북부지역어의 음운과 그 실현」(연세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천시권(1963) 경북지방의 방언구획「어문학」(한국어문학회) 13.
- 최갑순(1977) 「영동방언의 음운적 고찰」(충남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명옥(1978) 동남방언의 세 음소「국어학」(국어학회) 7.
- 최명옥(1979) 동남방언의 연구와 검토「방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 최명옥(1980a) 「경북 동해안방언 연구」, 영남대출판부.
- 최명옥(1980b) 경북 월성방언의 음운변화에 대하여「국어학」(국어학회) 14.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출판부
- 최명옥(1985) 변치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국어학」(국어학회) 14.

- 최명옥 (1986) 동남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국어연구소) 7.
- 최명옥 (1988) 국어 umlaut의 역사적 고찰 「진단학보」65.
- 최영희 (1982) 「충남 아산지역어의 언어분화에 대한 연구」(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최태영 (1984) 풍기 지역어의 움라우트현상 「송실어문」(송실대) 1.
- 최학근 (1971) 남부방언권과 북부방언권과의 사이에 게재하는 등어선설정을 위한 방언조사연구 「장암지현영선생 화갑기념논총」
- 최학근 (1976) 남부방언권과 북부방언권과의 사이에 게재하는 등어지대설정을 위한 방언조사연구 「어학연구」(서울대) 12-2
- 태학사 영인 (1986)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 홍문각 영인 (1984) 「칠대만법」
- chambers, J.K. and P.Trudgill (1980) Dialectology, London : cambridge univ.press.
- Hudson, R.A. (1980) Sociolinguistics, London : cambridge univ.prees.
- Kenstowicz, M and C.Kisseberth (1979)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 Meillet, A (1967) The comparative method in Historical Linguistics (Trans by Gordon B, F) paris : Librairie honoré champion.
- Petyt, K.M. (1980) The study of Dialect, Andre Deutsch.
- Samarin, W.J. (1972) Field Linguistics, New York : Rinehart and Winston.